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제5회 충현올림픽

온 교회가 협력과 일체의 한 마당으로

10월 3일(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제5회 충현올림픽이 오는 10월 3일(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사진)에서 열리게 된다. 특별히 금년 올림픽에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예수사랑 큰잔치때 우리 교회에 나와서 민기로 작정한 새가족들을 비롯해서 새신자, 태신자, 전도대상자를 포함한 전 교인이 참여하여 서로 간의 화목과 협력일치는 신앙공동체의 한마당이 되도록 예수사랑 올림픽을 계획하고 있다.

올림픽은 전 교구를 4개팀으로 나누어 각 팀별 대항으로 경기 및 게임을 하고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동수를 정하고 시상할 예정이지만 그러나 이 올림픽이 협력과 일체의 한마당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새신자, 새가족, 태신자들을 많이 참여시켜 전 교인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게하며 팀간 경쟁의식 보다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앙적인 행사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종목과 방식도 협력과

화목을 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준비위원회에서는 기본 조직외에 세부조직을 구성하고 각 부서별 업무분장을 통해 빈틈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 교인의 참여와 관심으로만 신앙공동

체, 예수사랑 올림픽 즉 충현올림픽에 의미가 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한다면 더욱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대회조직은 다음과 같다.

- 명예대회장 / 김창인 목사
- 고문 / 원로장로 전원
- 대회장 / 신성종 목사
- 준비위원장 / 노광현 장로

지도 / 김찬곤 목사

분과	분과장	교역자	주요업무
기획	차신득	김희수	사업 전반의 계획/ 기록/ 예배/ 재정/ 경기종목/ 시상
경기	김재명	현상민	경기 진행/ 경기보조기구
심판	박승준	장광욱	경기 심판/ 경기 기록/ 시상
동원	강은원	성봉환	동원/ 봉사/ 음료수/ 의료/ 질서유지/ 주변청소/ 팀관리
시설	오진국	이홍성	경기장 시설/ 차량관리/ 운반/ 구매, 조달
홍보	이종국	조동원	행사 홍보/ 제작/ 장내방송/ 표어
조정	윤명식	김찬곤	부서간 업무 조정/ 대외업무

회계감사 실시

1995년 상반기 회계감사가 지난 7월 2일부터 시작되어 한달동안 진행되고 있다. 각 부서의 회계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선교관 403호(매주 일 오전 9시 ~ 오후 2시까지) 감사위원회실로 와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여전도사 청빙

교회는 황정순 전도사(제8-1교구)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박도수 전도사(만 39세)를 새로 청빙하기로 했다.



박도수 전도사는 충신대학 종교교육학과, 충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창신제일교회, 예순교회, 할렐루야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일해왔다.

여름 계절학교 중등부까지 모두 마쳐

고등부는 금주 8월2-4일까지

국민학생부의 여름어린이성경학교가 지난 7월 18~20일까지 모두 마쳐졌고 중등1,2부가 7월 20~22일까지, 중등3부가 7월 24~26일까지 해서 중등부까지가 모두 끝났다.

매년 실시하는 여름계절학교지만 또 늘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수련회이다. 교회학교 1년 행사중에서도 가장 큰 행사이고 이를 위해 오랜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실시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늘 교회에서 주일에 1시간 정도의 시간밖에 교육할 수 없던 상황에서 2박 3일, 3박 4일 정도 숙식을 같이하며 지내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름수련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하는 것이다.

또한 수련회 후에는 참석자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금년에는 특별히 초등4부와 초등5부가 교회당에서 하룻밤을 자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여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갖게 하기도 했고 중등1부는 밥을 한끼 굶으며 식권을 어려운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 기증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중등3부는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흐뭇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월 6일에 실시한 사랑부는 계속적인 교사연구 시간을 통하여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영화상영, 인형극, 다른 교회학교와의 교류, 외부 기관과의 교류)을 통해 새로운 분위기에서 여름성경학교를 마칠 수 있었다. 7월 16-18일, 충현

기도원에서 가진 예비다부 여름계절학교는 휴일을 이용해 예비다부에 소속된 모든 가족 식구들까지 참여하여 마치 가족캠프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계절학교를 마쳤다. 매년 계속되는 행사이지만 그 중요성이 높기에 보다 세롭고 교육적 성취도가 높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운영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계절학교였다.

오는 8월 2-4일에는 고등부가 충현기도원에서 고등부 지도한근수 목사를 강사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또한 청년2부는 8월 21, 22일 교회 갈릴리움에서 충신대 김지찬 교수를 강사로 '못기 강해'를 하는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특별기회에 해당부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수련회를 기회로 또한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부서 수련회에 참석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요한계시록 강해 45 ●

새 예루살렘의 묘사

(계 21:9-27)

1. 어린양의 신부를 왜 보여주는가

9절을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준 바로 그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우리에게 어린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만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만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둔다 그 때문입니다. 마치 동물들처럼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린양의 신부, 즉 천국의 모습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저 위로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나귀처럼 볼품없이 못생긴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2.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1)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감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높은 산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패락과 멸망의 땅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문에 보면 산으로 올라가서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산은 바로 신앙과 계시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크고 높은 산은 영적인 시내산이요 계시의 산을 말합니다. 산에 가면 조용하게 자연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는 산보다 더 좋은 데가 없습니다.

(2) 크고 높은 성곽을 금갈대로 척량함

12절을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했는데, 15절을 보면 천사가 그 성곽과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를 대나무로 만들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대나무가 없기 때문에 갈대로 만듭니다. 따라서 본문의 금갈대는 금으로 된 척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규모와 생김새는 어떠합니까?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이요”라고 했습니다. 길이, 폭, 높이가 똑같은 정립방체로 그 길이가 일만이천 스다디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2,400km, 우리 나라 척도로는 6,000리가 되는 길이입니다. 그런데 전

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인간의 설계로는 이런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기술을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새 예루살렘을 신비하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아파트나 백화점처럼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립방체로서 균형되고 안정된, 우리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완전한 성곽을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올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는 225만 평방마일로 런던의 약 530배쯤 되는데, 이 세상에서처럼 산다면 530억 정도가 살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물론 이 척도는 흔히 우리의 계산 방법은 아닐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구의 10배나 살 수 있는 아주 큰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들어가 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곳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3.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

(1) 성과 성곽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18절 이하를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했습니다. 벽옥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1캐럿, 아니 그 절반만한 것이라도 선물을 받으면 그야말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성곽이 바로 그 벽옥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천억 캐럿인지 얼마인지 계산이 안됩니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존귀와 권고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큰 성곽이 다이아몬드로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 자체는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고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무너지기도 하고 낡아빠져 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성도 있지만 천국은 영원불변한 곳입니다.

(2) 성으로 들어가는 열두 문

12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성은 동서남북에 각각 세 개씩 열두 문이 있습니다. 열두 문은 21절에 보면 열두 천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방에 문이 셋씩이나 있는 것은 사방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리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열두 문이 그 많은 보석 중에 진주로 되어진 이유는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이 있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한다고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조개에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그것들을 아픔을 무릅쓰고 진액을 내어 감싸고 또 감싸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인 것처럼, 날마다 세상속에서 낙심치 않고, 기도와 인내를 가지고서 믿음으로써 시험과 환난과 싸우는 가운데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열두 문이 그 많은 보석 중에 진주로 되어진 이유는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이 있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한다고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조개에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아픔을 무릅쓰고 진액을 내어 감싸고 또 감싸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인 것처럼, 날마다 세상속에서 낙심치 않고, 기도와 인내를 가지고서 믿음으로써 시험과 환난과 싸우는 가운데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속에서 낙심치 않고, 기도와 인내를 가지고서 믿음으로써 시험과 환난과 싸우는 가운데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불로 연단된 금같은 믿음, 진주와 같은 참된 믿음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늘 감사하십시오.

(3) 성곽의 기초석

19, 20절에는 성곽의 열두 기초석을 이루고 있는 보석 열두 가지가 나옵니다. 벽옥(다이아몬드), 남보석(사파이어), 옥수, 녹보석(에메랄드), 홍마노(살도닉스),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정(보랏빛 자수정)으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이 보석들은 바로 대제사장의 가슴에 다는 흉배의 열두 보석과 같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인 흉배에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보석으로 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열두 가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4) 성의 길

성에 들어가는 길은 21절에 “열두 문은 열두 천주니 문마다 한 천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강남의 길들은 보도블럭이나 콘크리트나 혹은 아스팔트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성의 길은, 천국에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입니다.

4.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상

첫째로 성안에 성전이 없습니다(22절). 이 세상은 속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또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환난과 고통이 많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천국 전체가 다 성전입니다.

둘째로 해나 달의 비취이 쓸데 없습니다(23). 천국에는 자연의 빛이 필요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해

와 달이 비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양이, 우리 예수님이 등이 되십니다. 일부 분만을 비추는 등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치는 등이 되십니다.

셋째로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닙니다(24절 상반절). 이 세상은 낮에는 환하지만 밤에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닙니다. 이것은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사 60:3)고 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전세계적인 복음전파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넷째로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24절 하반절). 땅의 왕들이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은 천국에 갈 때 그냥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바친 모든 것을 가지고 갑니다. 바로 그것이 앞으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광입니다.

다섯째로 성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25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문을 잠급니다. 잠귀도 하나를 가지고 잠그는 것이 아니라 둘씩 셋씩 잠급니다. 그런데 천국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밤이 없다는 말은 도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부실이 없습니다. 불의도 없고, 죄악도 없습니다. 자유와 평화만 있는 완전한 곳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름은 교회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기록되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거듭난 하늘 나라의 백성들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낙도선교를 준비하며 ▶



파도 끝 무교회 섬으로

하현주

<대학부 회원>

누구나 푸른 바다를 보면 낭만적이라 할 것이며,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섬이라면 한 폭의 그림자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런 생각은 사치스럽다는 것을 이내 알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76개의 유인도와 2,710개의 무인도를 합쳐 총 3,186개의 섬에 약 266,385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476개의 섬들 중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도 있고(296개 섬) 무교회 지역(180개 섬)도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180개 섬은 전체 유인도의 38%에 해당됩니다. 무교회 지역이라고 해서 전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러한 무교회 섬들만을 섬기며 순회 전도하기 위하여 「방주호」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주호는 가까운 섬 교회의 목회자가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주변의 5~10개의 무교회 섬을 한 구역으로 정하고,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전도 혹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1988년 방주호 이래 1995년 현재 12호까지 12척)

지난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대학부가 다녀온 곳은 전남 완도군 금당면 비전리 비전도로서 방주 7호의 이환호(현 전남 교흥군 금산면 연흥도 연흥교회) 목사님께서 맡고 계신 구역이었으며, 통계상 유교회 지역에는 속하지만 실제로 현지에는 사역자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실 청소와 '비전도 교회'라고 써여진 교회간판을 싸고 있는 비닐을 벗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낙도선교는 시작되었고, 새벽예배로 시작하여 축조전도와 현장전도, 성경공부, 저녁집회, 기도회 등으로 이어지는 일과가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들은 나이 어린 꼬마에서부터 병석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또 새벽 갯벌의 꼬막을 바꾸니에 주워 담으시는 아주머니로부터 그물을 손질하시거나 담배를 맡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서툰 말솜씨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고 긴장된 마음으로……

안 들겠다라고 가라고 손짓하시는 아주머니들,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시던 할아버지, 섬에는 바빠서 교회에 나갈 사람은 없을 테니까 괜한 수고 말라고 일러 주시던 할아버지, 그런가 하면 새벽예배에 오고 싶은 마음에 자다가 세 번이나 깼었다면서 예배시간 30분 전에 나타난 3살 현이, 현이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날 새벽에 함께 불렀던 찬송 458장.

"주의 친절할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는 이렇듯 다양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특유의 호기심을 가지고, 학생들은 그저 묵묵히 듣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주머니들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언거워 하시고, 할아버지들은 좋은 것이지만 바쁘다는 말씀을 하시고, 청년들과 장년들은 그 작은 섬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뵈 수 없을 만큼 생업에 바빴고, 그보다도 복음에 대해 또 도시사람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그 섬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기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시는 그 분들 앞에서 그래도 담담히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의 죄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떠나는 날 아침……, 기념촬영을

영을 끝으로 우리는 비전도교회를 떠나기 아쉬운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빠져나와 선착장에서 방주 7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의 희미한 웃음과 희미한 대답이 차츰 웃음소리와 하나의 표정이 되기까지, 비전도 선교사역의 현장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자정이 지난 시각에 꿈꾸어 얼어붙은 차가운 바닷가를 찾아가 하나님께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마음 속에 품고 기도해나갈 것을 긴장된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그렇게 섬을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전도에서의 두 번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전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개인별로 10분 남짓 거리에 있는 '대화도'라는 곳까지 두 곳에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장봉생 목사님과 함께 대학부 회원 약 20여명이 모여 두 개의 사역팀으로 나뉘어져서, 7월 31일 ~ 8월 5일까지 일주일 동안 두 섬에서 각각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드라마와 인형극, 찬양과 율동을 계획 준비중에 있으며, 사역

에 필요한 모든 재정은 불펜과 부채의 판매대금과 뜻있는 분들의 지원금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사역에 동참할 수 없는 대학부의 지체들은 또한 기도후원과 물질후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7월 16일부터는 본격적인 팀모임과 기도회, 각종 연습이 시작될 예정이고, 19일 ~ 21일까지의 3일간은 낙도, 오지에 관한 선교특강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80년대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늘님이나 옥황상제, 용왕님 정도로 알고 있던 섬 아이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에 힘입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심어주기 위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으로 가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낙후되어 단절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180개의 무교회 섬의 지친 영혼들에게 세상을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현대문명과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20세기 보빈슨 크루소의 후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섬 사람들이 지금 마케도냐 사람처럼 우리를 손짓하며 부르고 있기에(행 16:9). 그곳을 향한 우리의 복음의 열정과 그 행보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시 교회들의 십자가 네온 불빛이 하늘을 향해 점점 더 높아져갈 때 이들 무교회 섬들은 파도소리와 함께 점점 더 사라져 갔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파도소리와 함께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제2회 새가정부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

유업의 상을 받는 가정

하동석

<새가정부 회원>

교회학교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새가정부에서는, 청포가 익어가는 계절 7월을 맞이하여 제12회 여름수련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새가정부를 졸업한 총현의 선배 가정들은 한결같이, 현역 시절에 황모기(?)에 물려가며 치렀던 여름수련회를 잊지 못한다고 대변한다. 아픈 추억만큼 성숙하다고나 할까? 그만큼 새가정부 1년 행사를 통하여 가장 의미 있는 행사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다.

금번 수련회는 95년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동안 총현기도원에서 새가정부 지도 목사인 박정규 목사님을 모시고, "유업의 상을 받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교사와 회원을 모

두합해서 60여 가정의 함께 이루어진 화합 한마당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삶의 균형을 맞추는데 최우선을 두어서, 전반부(1일째)는 영적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고, 후반부(2일째)는 육체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실천하는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캠프 화이어, 부부대화, 바자회, 가족 레크리에이션 및 체육행사 및 열매반(자녀들) 행사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수련회 첫날은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출발하였고, 캠프 화이어를 통하여 각자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시

간을 가졌으며, 이를 계기로 체험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수련회 둘째날은 아침 일찍 새벽예배를 통하여 평소에 게을렀던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으며, 아침체조(에어로빅) 또한 모두에게 신성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특히 '부부대화' 프로그램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으로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부부사이인데도 아직 대 못한 이야기(?)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가 과정을 마친 신교사님들을 모시고 풀어 보았다. 참으로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고, 가정의 소중함과 부부간의 대화의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모두가 진지한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족 레크리에이션과 체육행사에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발산할 수 있도록 각종 레크리에이션 및 족구 등을 하고 난 후, 땀으로 얼룩진 서로를 바라보면서 환한 웃음을 보낼 수 있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 늘 옆에 계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만족은 곧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동안 우리의 가정과 부부관계 등 소홀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재충전의 참으로 귀한 기회가 되었다.

어디서 어떤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가! 바로 새가정부 여름수련회!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새가정부 수련회는 총현의 부부들에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규 프로그램이 되어질 것이며, 이를 통하여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우리 가정들에게 예방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새가정부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 성령충만한 가정, 신숙한 응답받는 가정, 아름다운 열매맺는가정이 될 것입니다.

◀ 초등6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

즐겁고 유익했던 시간들

캐나다보다 더 재미 있었던 캠프

강 지 미

<초등6부, 새친구>

The thing I liked the best about camp is that I got to make new friends. I learned some vocabulary words in Korean.

Although I didn't understand what the priest was saying or what my friends were saying it until was fun.

The games were different but fun. Especially like the balloon propping game. Korean camp and Canadian camp are similar and different but I like the Korean camp better.

(캠프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국말도 약간 배웠다.)

목사님이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게임들은 어려웠지만 재미있었고 나는 풍선던지기 게임이 특히 좋았다. 한국 캠프(성경학교)와 캐나다에서 하는 캠프는 비슷한 것도 있었고 다른 점도 있다. 그러나 나는 한국 캠프가 더 좋았다.)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안 윤 정

<초등6부, 충성8반>

충현기도원에 올 때는 그냥 놀러고 왔었습니다. 막상 와보니 크리스찬 기독교생이 이러는 건 정말 큰 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곳까지 왔으니 은혜 받아 집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 저는 교회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자연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니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또한 즐거운 행사도 많이 있어서 불거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께 찬양하면 졸려움도 사라졌고 찬양을 부를 때에는 항상 즐겁게 찬양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이란 주제로 공부하였는데 정말 가정이란 중요한 것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언니 말씀을 잘 듣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여름성경학교 생활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며칠간의 아름다운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첫걸음

노세찬

<초등6부, 소망1반>

제일 처음 왔을 때 기도원은 정말로 신기했고 두려웠다. 왜냐하면 마스크나 영화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기도원을 직접가기 때문이다. 기도원에 도착하여 짐을 풀 다음 숙소를 배정 받았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도침숙과 시골이 확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첫째날의 하이라이트는 말대로 고난의 길이 최고였다. 며칠전에도 비가 와서 땅이 매우 질퍽거리고 물 웅덩이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정말로 실감났다. 또 비탈길도 있고, 더욱이 캄캄하고, 옆에 공동묘지도 있어서 등골이 오싹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희생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느껴질 때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둘째날의 하이라이트는 '우리 모두 다 함께'라는 프로그램이었다. 비록 EXPO 보다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시 숙소로 돌아오면서 진흙 밟 사지를 하기도 했지만 재미있고 보람 있는 날이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2박 3일을 보내며 많은 친구도 사귀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하

니

가 숨이 뻗듯 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시간에는 참뜻으로 찬양해야겠다고 느끼게 되었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7/24(월) ~ 8/30(수) '95 여름휴가
· 신성중 목사: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초청전도집회와 예수사랑 큰잔치 때의 결신자들이 등록자가 되게 하시고 등록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자와 양육위원들과 교구, 지역, 구역에서 잘 양육하게 축복해 주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한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한·미 정상회담에 큰 성과가 있게 하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7. 충현의 교회학교가 여름행사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시며 모든 학생들과 성도들이 은혜충만, 성령충만, 말씀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8. 삼풍백화점 붕괴로 슬픔을 당한 가정과 폭우로 수해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시며, 다시는 이와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이 모국방문 ▶



우리가 품어야 할 형제들

홀트아동복지회(Holt Children's Service) 계획에 의거 금년도 4번째 미국에 입양했던 입양아와 그들의 양부모(Adoptive parents) 등 일행 34명이 6월 30일 한국에 입국하였다. 제주도 등 여행을 마치고 민박과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7월 8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 도착하여 간단한 인사와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노광현 장로를 비롯한 13가정으로 민박에 들어갔다. 이들을 낳아준 모국, 한국의 가정을 소개하며 한국 가정에서 민박을 하였다. 그후 7월 9일 주일을 맞아 삼풍백화점 붕괴로 매몰 후 230여 시간만에 구출된 최명석 군의 생환의 기쁜 소식을 들으며 영어예배에 참석하여 노봉린 목사님의 'Waiting the right person'의 제목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후 다시 3부 예배에 참석했다.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이 미국 입양아들을 소개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이라는 설교말씀을 통해 그들을 낳은 한국은 그들을 품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미국으로 입양시켜 더 좋은 환경에서, 영어를 사용하면서 자라게 하고 공부시켜 주시오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선교사로 사용되면 이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힘주어 강조하셨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고 항상 주안에 살면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

씀도 있었다.

이에 오찬에 초대되어 장우천 목사님의 사회로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으로부터 한영성경전서 등 선물을 증정받고 홀트 국제아동복지회 총재인 David H. Kim 박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으며 식사와 친교를 마치고 아쉬운 행사를 마쳤다.

이들의 한국 방문 계획을 담당했던 한국 홀트 국제아동복지회에서는 지금까지 초청했던 행사중에 금번 충현교회와 같이 사랑과 환대와 가장 많은 가정이 민박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충현교회의 민박과 예배 참석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고 했다.

지면을 통해 특별히 그들을 초대하여 사랑으로 안아주고 민박을 담당했던 13가정에 감사를 드린다.

현재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하여 해외로 입양된 입양아 수는 140,000여명이요 95년도 한국방문 초청수는 250여명이다. 이들을 좀더 많이 초청하여 이들을 낳은 모국을 잘 소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발전상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한다.

이를 통하여 이들은 선교의 좋은 자원으로 잘 관리하여 그중 일부를 초대하여 모국인 한국에서 신학공부를 시킨 후 현지에 보내거나 또는 현지에서 신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선교사를 양성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를 생각해 본다.